우암학원 창학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全南日報

제10117호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음력 10월 12일

SOMIC 서울디엠씨
아파트·타운하우스 개발 사업

전남도, '블루오션' 김 육상양식 산업 선점 나선다

해수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 기후변화 생산량 감소… 대안 부상
도, 해남군·CJ와 컨소시엄 구성 김 생산 1위 입지·'K-푸드' 선도

전국 1위 김 생산지인 전남도가 최근 미래먹거리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김 육상양식 산업 선점에 나서 주목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내년에 공모할 예정인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 사업' 선정을 위해 해남군, CJ 제일제당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김 육상양식 산업 대응에 발빠르게 나섰다.

해수부는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0억원을 우선 반영했으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50억원을 투입하기로 해 공모사업에 전남도가 선정될 경우 전국 김 생산지 1위라는 전남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K-푸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육상양식은 바다 양식과 달리 지상에 설비를 갖추고 해수를 이용해 김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면적의 한계가 낮아 바다와 동일한 면적에서 더 많은 양의 김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김 생산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김 수출 증가 현황 및 김 산업의 당면 과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 표층 수온은 1968년부터 2022년 사이 1.36도 상승했다. 세계 표층 수온이 동기간 0.52도 상승하는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 국내 김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전남 지역의 올해 김 생산량 또한 2023년 기준 평년 대비 1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80년 뒤에는 남해안에서 김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면에 계속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내년 본예산' 광주 7조6천억·전남 12조5천억

시, 미래산업·도, 인구대전환 집중 투자
시교육청 2조8천억·도교육청 4조8천억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본예산으로 각각 7조6069억원과 12조5436억원을 편성해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2조8752억원을, 전남도교육청은 4조885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5년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027억원(10.2%) 증가한 7조6069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민생 회복·미래 투자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전남도는 내년 본예산으로 올해 본예산 12조2462억원보다 2974억원, 비율로는 2.4% 늘어난 12조5436억원을 편성했다.

전남도는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1934억원(7.2%) 증액한 2조8752억원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맞춤 다양성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 및 AI기반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전남도교육청은 4조885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노병하·오지현 기자

수능시험지 검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1일 수능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부된 가운데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답지를 검수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알립니다

'해양영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 해양영토의 중요성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식증진' 심포지엄

11월 14일 오후 2시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전남일보는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전남대학교와 전남일보·(사)전일엔컬스가 공동주최해 오는 14일 전남일보 승정문화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해양영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대주제로 '해양영토의 중요성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식증진'에 관한 주제로 열립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문병찬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초등학교 해양교육의 실증과 확대 방안'을, 김송철 담양고등학교 교장이 '중·고등학교 해양교육의 실증과 확대 방안'을, 오강호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 센터장이 '대학교 해양교육의 실증과 확대 방안'을 각각 발제합니다.

이어 김기중 전남일보 사업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김동주 전남대 연구위원 △박광재 국립군산대학교 전문연구위원 △빙기창 전남대 연구교수 △손준호 서일초 수석교사 △이경석 전남도청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전남일보 애독자와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 주 제 '해양영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해양영토의 중요성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식 증진'
일 시 2024년 11월 14일(목) 13:30 ~ 17:30
장 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주최·주관 전남대학교 ·전남일보·(사)전일엔컬스
후 원 전라남도·한솔이엔씨
문 의 전남대학교(062)530-5027 전남일보 (062)519-0730